

# 현대불교

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직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아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 지정 전국 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우리 전통차의 차별화대를 위해 생소한 보급(생선차 오리지널 차)

0595)83-9665 / 83-3478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이자가 오르면 오르면 바로 내달리는 대우통장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우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환 / 발행인: 김진업 / 편집: 김광삼 / 논설: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8월 2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귀이다.

(천칭문경)

### 법회 안내

- 정종선원** (02)573-8506
-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 광안법회 매주 월 오전10시(30분)
  - 교리법회 매주 수 오후2시
  - 천안스님 초창법회 8월 28일
  - 오전10시(100분)
  - 해당스님 초창법회 9월 4일
  - 오전10시(100분)
- 보문사** (02)928-3797
- 보리법회 매월 3일
  - 합천법회 매주 목 오후2시
  - 창년법회 매주 토 오후6시
  - 중·고급법회 매주 일 오후2시
  - 연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부산 영주암** (051)754-2210
- 어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중·고급법회 매주 토 오후3시
  - 창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 창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이리 관음사 (0653)54-1578
- 일부전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합천법회 매주 수 오후2시
  - 창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 화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100분)
  - 어린법회 매주 일 오후2시
- 대전 영선사** (042)523-0813
- 거사법회 매월 첫째 일 오후6시
  - 대법안법회 매주 수 오후6시
  -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세계여성불교도 대회 참가기** 14면

**몽골불교 현황을 가다** 15면

## 검인정교과서 종교교육 질 높인다

### 고교 종교 교과목 내년 개편... 타종교란도 신설

고등학교 종교교과서에 종교 대폭 포함됨에 따라 타종교에 일반 및 타종교에 대한 항목이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범어사 주지스님의 '침묵'** 범어사 입구 경동아파트 건립 반대 시위에 나선 1백20여 분 일사 스님들은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법회에 들어갔다. 사진은 1일부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 <관련기사 19면>

는 계기가 마련됐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교과서를 발행하는 불교교육연합회와 가톨릭교육재단연합회 기독교교육연맹은 서울시교육위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6차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 '타종교상황의 인식과 다른 종교의 견해와 신앙에 대한 포용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의 집필을 당부한 '종교교과 내용'을 받아들여 새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현재 검인정을 신청해 놓고 있다.

불교교과서는 전체 13개 대항목 중 5개 대항목을 '인간과 종교' '세계의 종교' '한국문화와 종교' '종교경험의 이해' '현대사회의 종교' 등으로 구성해 집필을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위에 검인정을 신청했다.

천주교는 지난해 교과서를 제작, 올해 1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다. 천주교 교과서는 239쪽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쪽을 할애해 인간과 종교와의 관계 및 불교 유교 등 각 종교의 성립과 한국에서의 전개과정을 소개했다. 불교의 경우, 사상·교리 경전 종단으로 분류해 16쪽에 걸쳐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상·중·하권으로 나온 기독교교과서는 각권마다 '인간과 종교' '한국의 종교' '현대사회의 종교'를 대항목으로 실었

다. 불교는 '불교의 전통과 사상'(상권) '불교의 수용'(중권)을 소항목으로 설정해 사상과 교리, 한국불교의 시대적 전개과정을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종교의 정의를 신(神) 또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귀의로 단순화시킨 것은 폭넓은 종교이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종교를 '신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수행하는 인간의 태도 '창조주와 인간이 연합하는 과정, 질타와 그 의식'이라며 신중심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불교는 여러 종교의 현상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이해를 강조, 종교정의의 단순성을 경계했다.

자칫 종교간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집필된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대 윤원철교수(종교학)는 "청소년기에 종교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개편취지가 충분히 반영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정성운 기자)



◇ 동국대는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 5천매를 제작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송석구 총장은 지난 17일 차량에 스티커를 직접 부착했다.

## '불자 가정' 스티커 20만매 돌파

### 동국대 5천매 등 단체보급 확산... 차량용도 제작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불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만매를 돌파했다.

본사에는 적게는 한장에서 수백장을 신청하는 전화가 매일 걸려 오고 있으며 월간 '불광' '대중불교' 등 교계 언론에서도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와 양산 천불사, 본원정사도 각각 5천매를 제작 보급 직인과 신도들의 가정에도 개인 신청과 단체 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가정용 20만매 돌파를 계기로 차량용 스티커 이다. 를 별도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

조계종 종단현안문제 해결대책위(위원장 정효스님)는 전통사찰보존법상 '재선처분승인' 조항 개정에 관해 중앙종회 각 상임분과위원회의를 열고 경내지 범위확대 등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위임받고 본격적인 개정추진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종단재산의 불법적 처분을 막기 위해 △정통사찰 경내지안에 있는 동산·부동산의 처분시 종단의 승인과 문체부 장관의 허가, 경내지 밖에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시 종단의 승인, 또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 범위를 경내지에서 정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으로 확대 하지는 안 등으로 압축 사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보완할 예정이다.

## 사찰 부동산 처분 통제장치 보완

### 조계종, 전사법 개정 위한 각 분과위 여론수렴

조계종 종단현안문제 해결대책위(위원장 정효스님)는 전통사찰보존법상 '재선처분승인' 조항 개정에 관해 중앙종회 각 상임분과위원회의를 열고 경내지 범위확대 등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위임받고 본격적인 개정추진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종단재산의 불법적 처분을 막기 위해 △정통사찰 경내지안에 있는 동산·부동산의 처분시 종단의 승인과 문체부 장관의 허가, 경내지 밖에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시 종단의 승인, 또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 범위를 경내지에서 정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으로 확대 하지는 안 등으로 압축 사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보완할 예정이다.

###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신문 판촉사원을 찾습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전 지면을 신영위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 가운데 '신영의 길잡이' 현대불교를 보급하는 일에 저희와 함께 동참할 '일선 전방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분	모집인원	시기	자격	구비서류	대우
신문 판촉요원	00명	상시	제한없음 (고교졸업 경력자 기용우선)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 등본 및 봉투 1통	소정의 월봉급 지급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02)737-8881 판대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목어

'공복 50주년'이 63일만에 선명히 드러나면서 여의도 고수부지에서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영상쇼가 한창을 무대로 펼쳐졌다.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이 더욱 돋보인 이날 행사가 끝난뒤 한강변 고수부지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있었다. TV화면에 비친 쓰레기를 보는 순간 공복 50년 기념행사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게 어디 목어지만의 심정이었을까.

### '나부터 달라지자'

거울삼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취지에서다.

일제의 잔재인 옛 총독부 청사가 제거되고, 순차적 달려온 50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젊음과 지성의 거리에서 일본 노래가 흐르고 있는 경경을 상상해보자. 또 일본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을 그대로 흉내내고, 일본 우동집이 불비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행사는 갈차레음이 아니다.

### 신행단체 실태조사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정책 수립의 자료활용과 신행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각종 직장, 직능별 신행단체의 연락처, 임원명단, 신행활동 상황, 지도법사 등을 11월까지 조사할 예정.

### 금주 20면 발행

# 신명나는 지방자치, 힘차게 다시 땡시다!



**원비-F**  
GINSENG & TOCOPHEROL

1일 1회 1명  
호남·호과·옥체피로·  
지방간장·허약체질

보은스제가  
550원

**韓國人 -**  
정정당당하게 거두고  
다시합쳐 힘을 모읍시다.

지방자치는 세계화의 출발 -  
깨끗한 선거, 바른선택으로  
21세기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세계로 가는 한국,  
미래로 가는 한국인-  
우리의 힘과 저력뒤엔  
언제나 인삼이 든 **원비-F**가  
함께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일양약품**

洋藥方의 과학학을 선도하는...  
전국 50,000여 개 약사, 약방, 약국에  
일양약품은, 21세기 과학의  
국산인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